

현존하는 간다라시대 최대 사원인 '탁트이바히'를 참배하는 조계종 대표단. 큰 돌과 작은 돌을 빈틈없이 쌓아올려 만든 사원은 순례자들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사원이 자리한 산자락 아래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헬레니즘 꽃핀 간다라 '환희의 불교'

특별기획 동서 문명 교차로 파키스탄을 가다

① 간다라문명 발상지, 페샤와르

② 아소카왕의 고향, 탁실라

③ 목숨 건 전법 여정, 길기트

대한불교조계종은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했다. 싯다르타 고행상을 간직한 라호르박물관을 시작으로 히말라야와 힌두쿠시 · 카라코람산맥이 만나는 훈자, 아소카왕의 고향 탁실라, 간다라의 옛 수도 페샤와르까지 파키스탄 북부를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가 된 파키스탄. 알렉산더와 아소카왕, 마라난타 스님의 발자취가 깃든 파키스탄 구법 순례기를 간다라문명과 불교가 퍼져나간 페샤와르-탁실라-길기트 · 훈자 순으로 3회에 걸쳐 지역별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근대 영국 식민지를 거친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4일 독립을 선포한 신생국가다. 펀자브(Punjap), 아프간(Afghan), 카슈미르(Kashimir), 신드(Sind), 발루치스탄(Baluchistan)의 글자를 딴 파키스탄(Pakistan)은 '순수한 땅'을 의미한다. 이슬람국가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한 이름이자 2억 명의 인구 중 97%가 무슬림인 나라. 얼핏 불교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 이곳에는 고대 불교 역사가 인더스강을 따라 면면히 흐른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불교도의 손길이 좀처럼 닿기 어려운 국가라는 점은 파키스탄에 대한 신비감을 더한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출장이 확정된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혹시 모를 '위험'이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정보가 워낙 부족하고, 탈레반과 IS, 알카에다 등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접해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 없었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파키스탄을 '여행자제' '철수권고' 등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파키스탄에 대 한 국내 인식이 이러하니 우리나라 직항 비행기는 없다. 인천공항에서 방콕으로, 그리고 라호르로 총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파키스탄에 도착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발을 디딘 파키스탄의 첫인상은 안타깝게도 '대기오염'이었다. 공항 밖을 나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자동차 매연이 후각을 괴롭힌다. 과장을 조금 보태 공장 굴뚝 위에 서 있는 느낌이다.

현지시각으로 밤 11시가 넘어 도착한 파키스탄 라호르. 피곤한 심신과 숨쉬기 어려운 부정적인 인상을 안고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숙소로 향했다. 모든 캐리어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에 한숨이 쏟아졌다.



탁트이바히 사원 경내. 불상을 모셨던 감실과 크고 작은 탑들의 기단부가 남아 있다. 사원벽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물도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현재 페샤르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탁트이바히는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복원기술력이 좋지 않아 원형과 복원부분의 차이가 느껴진다.

간다라 최대 사원 '탁트이바히'

순례의 시작점은 라호르였지만 간다라문명의 발상지인 페샤와르는 일정이 다 끝나갈 때쯤 방문할 수 있었다. 위아래로 길쭉한 땅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이기에 순례 동선을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걸 새삼 느꼈다. 순례 말미에 방문한 페샤와르를 파키스탄 순례 연재의 첫 순서로 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곳이 간다라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불교도로서 간다라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성인이 된 알렉산더가 BC 335년 동방원정에 나서면서 페르시아를 정벌하고, 힌두쿠시산맥을 넘어 인더스강까지 진출하면서 중앙아시아 곳곳에는 고대 그리스의 정신과 문화를 잇는 '헬레니즘(Hellenism)'이 탄생한다. 특히 간다라는 알렉산더에 의해 점령당한 뒤 그리스계의 지배를 받으며 헬레니즘이 깊게 배어들었다. 이후 BC 80년 무렵 흉노에 쫓겨 피난 온 대월씨국이 자리를 잡고, 쿠샨왕조를 형성하면서 세계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다라미술'이 발전했다. 국내 교과서에 실리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고행상이 대표적이다.

페샤와르는 라호르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약 4~5시간을 달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닿은 뒤 서쪽으로 2시간가량을 더 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 멀다는 서울-부산보다도 더 멀기 때문에 한국인에겐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물론 중국여행에 비할 바는 아니다. 페샤와르는 페르시아어로 '고지대의 요새'란 뜻이지만 이곳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푸르샤푸라(Purushapura)'라는 도시였다. '인간의 도시'란 의미인데 페샤와르가 푸르샤푸라에서 이름을 유래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페샤와르까지 가는 길은 제법 멀었지만 큰 불편은 없었다. 국가 경제력에 비해 도로가 비교적 잘 정비된 파키스탄이었다. 무엇보다 대우건설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라호르를 잇는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한 게 도움이 됐다. 파키스탄 GDP의 절반이 해외원조라는 말을 실감했다.

페샤와르 인구는 약 2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넘는 라호르나 350만 명이 사는 이슬라마바드에 비하면 인구대비 지역 개발이 꽤나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2〉

B4
출판
강행원의 〈금까마귀 들락날락〉

B5
문화
'미얀마의 불교미술' 展